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의 함의*

— 미 해군 해양전략과 미 해병대의 전투개념 변화를 중심으로 —

조성진** · 정창윤***

•요 약•

본 연구는 인도태평양 미·중 해양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퇴보하고 있음을 미 해군의 해양전략과 해병대의 전투개념의 변화를 해양통제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해양통제의 목적(행사)과 수단(확보) 면에서 미 해군의 해양전략 변화를 분석한 결과 행사에서 확보로 중점이 전환되어 그 수준이 퇴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해양통제의 구성요소인 해양사용과 해양거부 측면에서 미 해병대의 새로운 전투개념인 EABO를 분석하였으며, 변화의 목적이 미 해군의 해양통제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었다. 미·중 해양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위기의식이 해양전략과 전투개념에서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미·중 해양경쟁 심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안보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며, 미래 해양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주제어 : 미중 패권경쟁, 해양통제, 전투개념, EABO, Force Design 2030

I. 서론

이 글에서는 최근 미·중 간 인도태평양 해양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여 자국의 해양전략과 해병대의 전투개념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해양통제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을 따라잡고 있고 양적으로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을 확보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¹⁾ 중국 해군력이 양적 우위를 달성했음에도

* 이 논문은 2024년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국고 과제의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연구임.

** 해군미래혁신연구단 해군 중령,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 해병대사령부 전략기획과 해병대 중령, 국제정치학 박사 : 제2저자

1) 미·중 군함 척수는 2025년 기준 400:287척, 2030년 기준 425:294척이다. Ronald O'Rourke,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질적으로는 미국이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도전국의 지위에 있다고 여겨왔다.²⁾ 하지만 미국의 전략/개념문서상에서 관찰되는 미국의 위기의식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군사적 충돌까지 대비해야 하는 미 해군·해병대의 위기의식에 따른 전략과 전투개념의 변화는 인도태평양에서 미·중 경쟁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경쟁의 핵심은 인도태평양에서의 해양패권 경쟁이고, 해양패권의 군사적 척도는 해양통제이며, 그것을 이행하는 조직은 미 해군과 해병대다. 미 해군의 해양전략은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하위 전략문서이며, 해병대의 전투개념은 해양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하위 개념문서이다. 실제 현장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군사적 충돌까지 대비해야 하는 미국 해군·해병대의 위기의식에 따른 전략과 전투개념 변화가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이다.

해양통제는 일반적으로 제해권(Command of the Sea)과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제해권은 “자국이 필요로 하는 해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국이 자국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해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능력, 또는 그 상태”³⁾ 혹은 전쟁에서 바다를 지배하는 정도로 이해되어왔다. 해양통제 개념 역시 세부적으로 분석되지 않고 제해권과 유사한 의미로 연구에 사용되었을 뿐이다.

김주환은 중국의 공세적 해양전략으로의 전환을 분석하며 바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제해권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았다.⁴⁾ 윤민우는 소련과 러시아의 전략을 분석하며, 해양통제가 해양사용과 해양거부로 구성되어있음을 제시하였지만, 실제 분석은 공세적인 해양통제와 수세적인 해양거부로만 설명하였다.⁵⁾ 조민성·정창윤은 해양거부 측면에서의 미 해병대의 EABO를 주목하였지만, 미 해군전략 및 해양통제 경쟁을 분석하기보다는 한국 해군의 해양통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해병대의 도서지역 작전수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하였다.⁶⁾

CRS Report (2024.8.16.), pp.6-11.

- 2) 최우선, 『미중 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IFANS 국제문제분석 2020-62,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2020.10.23.) pp.5-6.
- 3) 두산백과, “제해권(control of the sea)”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1462&cid=40942&categoryId=31734>(검색일: 2024.10.10).
- 4) 김주환, “중국의 제해권 확충 노력: 조어도 분쟁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제9권, 동북아역사재단, 2015, pp.74-99.
- 5) 윤민우, “소련·러시아의 동북아 해양안보와 해군전략: 전쟁과 평화의 바다로서의 한반도 주변해역,” 『평화학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3, pp.29-56.
- 6) 조민성·정창윤, “미래 한국 해병대의 도서지역 작전수행 연구: 해양거부 관점에서,” 『해양안보』, 제8권 제1호(통권 8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4, pp.73-102.

본 연구의 목적은 미·중 해양통제 경쟁에서 미국의 퇴보하고 있음을 미 해군의 해양전략과 해병대의 전투개념의 변화를 해양통제 이론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통제 개념을 확보와 행사, 해양사용과 해양거부로 세부적으로 구분한다.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를 통해 해양통제의 목적(행사)과 수단(확보) 측면에서의 우선순위가 변화한 것을 확인하고 미국의 해양통제 수준의 후퇴를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미 해병대의 새로운 전투개념인 원정전방기지작전(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 이하 EABO) 분석을 통해 미 해군 단독으로 미·중 해양통제 경쟁에 대처가 불가하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해병대 EABO 전투개념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의 틀

전략적 유연성, 치명성, 기동성, 현시성을 모두 갖춘 미 해군·해병대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미 해군·해병대의 전략과 전투개념은 한미 연합방위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안보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양통제라는 군사이론의 프리즘을 통해 미 해군·해병대의 전략과 전투개념이 변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에서의 미·중 해양패권 경쟁의 추이를 인식함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의 전략과 전투개념 변화의 기저 논리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대외정책과 전략개념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병대의 전투개념의 근본적인 분석을 위해 미국 정부, 해군, 해병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문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해양통제 이론에

대해 해양통제의 확보와 행사, 해양사용과 해양거부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이후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3장에서는 미국의 해양전략이 해양통제의 확보와 행사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미 해병대의 새로운 전투개념인 EABO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력개편계획인 「Force Design 2030」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여 미 해병대가 해양거부를 통해 해양통제 경쟁을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II. 이론적 고찰

1. 해양전략(Maritime Strategy)과 전투개념(Warfighting Concept)

해양전략(Maritime Strategy)은 국가전략 수준의 용어로 해군전략(Naval Strategy)과는 구분되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해양전략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시 및 전시에 국가의 해양력을 운용하고 해양을 사용하는 술(art)과 과학(science)”으로, 해군전략은 “국가전략에 의해 결정된 목표 또는 해양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군력을 운용하는 술(art)과 과학(Science)”이다.⁷⁾ 한편, 미국에서는 1890년 알프레드 마한(Alfred T. Mahan)에 의해 제기된 해양전략이 미국 국가발전에 적용된 이후 미국의 해양전략은 국가전략을 대변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의 해양전략은 세계대전과 냉전시대로 이어지며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미국의 세계전략으로 확장된 포괄적 개념이 되었다.⁸⁾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미 해군의 공식문서에서도 해군전략이라 하지 않고 해양전략(Maritime Strategy)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양전략을 그대로 사용한다.

“미래에 어떻게 싸우고 어떤 전력을 준비할 것인가?” 무기체계 도입은 십수년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된다. 체계적인 무기도입을 위해 미국과 우리나라는 합동전투발전체계(Joint Combat Development System)을 운용한다. 미래에 어떻게 싸울 것이고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지를 판단하고 도입 예정 전력과 필요능력과의 차이를 평가한 다음 필요한 전력 소요를 요구하고 결정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가장 먼저 도출되는 결과물이 바로 미래에 어떻게 싸울지를 제시하는 미래작전개념이다. 하지만 이 용어는 전시 작전계획 작성에 사용되는 작전개념(CONOPs: Concept of Operations)과 용어가 유사하여 미군은 전투

7) 해군, 『해군·해병대 군사용어사전』, 대전: 해군본부, 2022, p.56.

8) 윤석준, “21세기 미국 해양전략 발전과 의미,” 『해양전략』 139호, 해군대학, 2008, pp.2-3.

개념(Warfighting Concept)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 합참은 합동전투개념(Joint Warfighting Concept)을 “합동군이 미래에 어떻게 싸울지에 대한 작전적 접근법을 설명하는 글로벌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⁹⁾ 주요 역할은 미래 전력건설에 지침이 되는 공통의 개념과 각 군이 미래에 어떻게 싸울 것인지, 어떤 전력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각 군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투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EABO가 해병대의 전투개념이다.¹⁰⁾ 우리나라는 아직 전투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작전개념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의미 전달과 분석 대상을 고려하여 작전개념 대신 미국의 전투개념을 사용한다.

2. 해양통제(Sea Control) 개념

모든 해양전략과 해상분쟁은 해양통제 이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해양통제는 해양력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해양력이란 “해양을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해양력은 해군력 이상의 것으로 해운, 자원, 기지 등을 포함하는 용어이며, 국가의 정치, 경제 및 군사력으로 전환되는 국력의 일부분”이다.¹¹⁾ 해양력을 통해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대량의 화물과 인원을 신속하게 수송하는 능력에 있다.¹²⁾ 바다를 상업수송과 무역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수준의 정도에 따라 해양국가들의 경제는 발전하였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¹³⁾

대량수송 능력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하며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군사적 역량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호하며 경제력은 다시 군사력 건설의 기반이 된다. 바다를 군사·경제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지는 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게 마련이며 해양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바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양통제에 있다. 해양전은 지상전과는 달리 영토의 점령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이것이 해전과 지상전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해양통제의 핵심은 우군이 해양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의 해양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¹⁴⁾ 해양에서의 전투는 바다를 이용하는 권리를

9) US JFC, *Joint Strategic Planning System*, Virginia: JFC, 2024, p.G6.

10) Thomas A. Walsh and Alexandra L. Huber, “A Symphony of Capabilities: How the Joint Warfighting Concept Guides Service Force Design and Development,” *Joint Force Quarterly* 111 (2023.10.) pp. 6-7.

11) 해군(2022), 앞의 책, p.56.

12) Norman Friedman, *Seapower as Strategy*,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2001, pp.40-41.

13) Geoffrey Till,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Frank Cass, 2004, pp. 17-18.

14) Julian S. Corbett,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Maryland: USNI, 1988, pp.93-94.

상호 배타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의지 간의 충돌이다.

해양통제는 처음에는 제해권(Command of the Sea)¹⁵⁾이라는 용어로 알려졌다. 마한(Alfred T. Mahan)은 제해권을 “해양에서 인원과 물자를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수송하는 능력을 보증하고, 적의 이러한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¹⁶⁾ 제해권의 개념은 이후 여러 해양전략가에 의해 정교화되었는데 광활한 바다를 절대적으로 점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므로 제해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었다.¹⁷⁾ 즉 모든 시간과 해역을 절대적인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해권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상대적인 제해권이란 우군이 해양을 사용하고 적은 그러지 못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시기와 장소, 그리고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다.

실현 불가능한 개념인 절대적인 통제를 뜻하는 제해권이라는 용어는 해양통제로 대체됐다.¹⁸⁾ 오늘날 각국의 해군은 해양통제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양통제를 상대적 개념을 내포한 비슷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은 “아군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시기 및 해역에서 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의 해양사용을 거부하기 위하여 적의 해군력을 효과적으로 제압 또는 통제하는 상태”로 정의한다¹⁹⁾. 미 해군은 해양통제를 “특정 지역, 특정 기간동안 특정 목적을 위해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이며, 특정 지역에 대한 적군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미 해군은 해양통제의 공간적인 범위를 해수면 상공과 수중, 그리고 해저까지 포함(Sea control includes the airspace above the surface and the water volume and seabed below.)한다고 명시하였다.²⁰⁾ 단지 수면상에서 선박들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된 공중 영역과 수중, 그리고 최근 논쟁거리인 해저면까지 확대한 것이다.

한편 해양우세(Maritime Superiority) 역시 해양통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우리 해군은 해양우세를 “해양을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일정 기간에 일정한 해역에서 적보다 상대적으로 우세를 달성함으로써 적의 방해를 거부하고 아측이 원하는 대로 해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 해군력을 제압하는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의 우세 정도”²¹⁾라고 정의하며 해양통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다. 미 『합동해양작전교

15) 한국해군에서는 제해권이라는 용어 대신 해양지배를 사용하고 있다.

16) 김현기, 『현대 해양전략 사상가』,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pp.137-139.

17) Ian Speller, *Understanding Naval Warfare*, New York: Routledge, 2019, pp.71-72.

18) Milan Vego, *Maritime Strategy and Sea Control*, New York: Routledge, 2016, pp.52-54.

19) 해군, 앞의 책(2022), p.56.

20) US JFC, *JP 3-32 Joint Maritime Operation*, Virginia: JFC, 2023, p.I-4.

21) 해군, 앞의 책(2022), p.56.

법』에서는 해양통제, 해양력 투사, 억제, 해양안보, 해상수송 등 5가지를 해군력의 핵심적인 5가지 기능이며, 이들 기능 운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양영역에서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해양우세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²²⁾ 따라서 해양통제는 전술/작전적 수준에서 해군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 해양우세는 작전/전략적 수준에서 합참 이상의 제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엄격히 구분하지는 않고 해양통제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해양통제의 개념은 연구대상을 고려하여 미 해군이 사용하는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다.

3. 해양통제의 수단과 목적: 확보와 행사

해양통제를 확보(Securing)하고 유지(Maintaining)하는 것은 해군전략의 제일 중요한 목적으로 여겨지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해군이 해양통제를 확보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확보한 해양통제를 활용(Exploiting)하여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군사작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²³⁾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전쟁의 목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전투가 수단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해양통제 확보는 결국 바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호 간 영향력 확보 경쟁의 결과다. 해양에서의 아군의 영향력은 확장하고 적의 그것은 축소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콜벳은 해양통제 확보의 방법으로 해군력이 우세한 측이 사용하는 함대결전, 봉쇄, 해군력이 열세한 측이 사용하는 현존함대전략, 소규모 대응공격 등 4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함대결전이란 가용한 해군세력을 집중하여 적 해군세력을 격멸하여 해양통제 확보와 행사를 방해하는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봉쇄란 적 또는 가상적국의 해상이나 항만을 무력으로 봉쇄하여 통항이나 교역을 못하게 하는 조치이다. 현존함대란 해군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적에게 부담이 되므로 결전을 회피하고 세력을 보존함으로써 적 함대를 견제하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소규모 대응공격이란 열세한 해군이 해군력 운용을 포기하지 않고 적은 적투력이라도 공격행위를 하여 적을 견제하는 것이다. 제프리 킬은 함대결전과 봉쇄에 대해서는 코르벳에 동의하였으나 현존함대와 소규모 대응공격은 특성상 동시에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현존함대 전략으로 통합하며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⁴⁾ 한편,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해상에서 적의 전투력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의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대지 미사일,

22) US JFC, op. cit., pp.1-2 ~ 1-3.

23) Julian S. Corbett, op. cit., pp.161-162.

24) Geoffrey Till, op. cit., pp.162-170.

무인항공기, 무인수상정을 이용하여 기지에 정박한 해군 함정과 주변 시설물을 직접 타격하여 직·간접적인 전투력 모두를 격멸하는 것이다.²⁵⁾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상함이 단 1척도 없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해군기지를 직접 타격함으로써 러시아 흑해함대를 세바스토폴에서 철수시키기도 하였다.²⁶⁾

해양통제 행사는 해양을 통제하여 이를 아군에게는 유리하게, 적에게는 불리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콜벳은 해양통제 행사방법으로 적 상륙작전에 대한 방어, 통상에 대한 공격 및 방어, 상륙작전의 공격 및 방어, 지원 등 4가지 방법으로 구분했다. 해양력 투사란 전술항공, 해군 화력지원, 해병대 상륙강습 등 해양으로부터 지상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이다. 해양력 투사에 대한 방어란 적이 해양력 투사를 이용하여 군사적 이점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방어하는 것으로 적 함대를 직접 공격함으로써 방어할 수도 있고 적이 투사한 병력과 무장을 중간 혹은 최종단계에서 방어할 수도 있다. 해상교통로에 대한 공격은 적의 군사/민간 선단을 공격하여 적 군사력의 해상을 통한 이동을 차단하고 적의 전시 경제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해상교통로 방어란 해상을 통한 군사/민간 수송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다.²⁷⁾ 해양통제 확보와 행사 방법을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해양통제의 확보(수단)와 행사 방법(목적)

해양통제 확보 방법	해양통제 행사 방법
함대결전 (직접적 전투력 격멸)	해양력 투사
해군기지 타격 (직·간접적 전투력 격멸)	해양력 투사에 대한 방어
현존함대 (영향력 유지)	해상교통로 공격
함대봉쇄 (영향력 차단)	해상교통로 방어

출처: 조성진·조재욱, 앞의 글, pp.99-100. 참조 제작성.

해양통제의 진정한 이익은 해양통제를 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군사적으로는 바다에서 적 해안으로 화력과 물자를 투사하여 적보다 유리한 상태로 전쟁을 치를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여 국가의 무역수송로를 보호하여 자원을 수입하고 물

25) 조성진·조재욱, “해양통제 확보 수단으로서 해군기지 타격에 관한 연구,” 『안보군사학연구』 제19권 제2호, 안보군사연구원, 2023 참조.

26) Brian Glyn Williams, “How the Ukrainians - With No Navy - Defeated Russia's Black Sea Fleet,” *Military.com* (2024.7.19.)

27) Geoffrey Till, op. cit., pp.162-234.

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반대로 적국의 해상수송을 방해하고 거부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저하시켜 전쟁 지속능력의 근간을 파괴한다.

4. 해양통제 2가지 요소: 해양사용과 해양거부

해양통제는 해양사용과 해양거부라는 2가지 하위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해양사용은 해상교역과 해군 유지와 같이 전통적인 국가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해양을 이용하는 능력이다.²⁸⁾ 해양통제를 달성하여 자유로운 해양사용을 통해 국가안보를 달성하고 군사작전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해양을 이용한 대량수송을 통해 에너지, 원자재, 주요부품, 식량, 생필품을 수입하고 생산물품을 수출하여 국가의 경제적 기능은 유지하고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지원력을 확보한다. 해양을 통해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바다에서 육지로 전투력을 투사(Power Projection)하는 군사적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적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군사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해양거부는 “아군의 해양통제 노력을 최소한으로 시도하면서 적의 해양사용 거부에 중점을 두는 것”²⁹⁾이다. 해양거부는 해군력이 열세한 국가가 해양통제의 대안으로 중견국이나 약소국이 강한 해군력을 가진 국가에 대항하는 저렴하고 달성 가능한 정책이라고 여겨진다.³⁰⁾ 하지만 해양거부는 해양통제의 대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통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이다. 해양통제의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해양통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적의 해양사용을 거부하는, 즉 해양거부를 달성해야 한다. 때로는 강력한 해군 들조차도 어떤 구역에서는 해양통제를 고수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는 해양거부를 수행한다. 왜냐하면, 모든 해양에서 완전한 해양통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³¹⁾ 해양거부를 해양통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약소국이 수행하는 대안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은 해양거부의 진정한 의미를 절반만 이해한 것이다. 해양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거부도 필요하다.

과거 해양거부는 일반적으로 연안과 인접한 해역에서 해안포나 기뢰, 기동성이 부족한 잠수함에 주로 의존하였다. 하지만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해양거부의 수단들

28) 박창희, 『군사전략론』, 서울: 플래넷미디어, 2017, p.272.

29) 해군(2022), 앞의 책, p.56.

30) Richard Dunley, “Is sea denial without sea control a viable strategy for Australia?,” *The Strategist* (2019. 10.10.)

31) Geoffrey Till, op.cit., pp.157-159.

은 더 발전하고 있고 치명적으로 바뀌고 있다. 현대에 해양거부를 치명적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무기체계는 미사일이다. 국가들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가성비 좋은 무기이자 국력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더 저렴하고 우수한 미사일을 만드는 역량은 보편화하고 있다.³²⁾ 미사일의 사거리, 속도, 스텔스 능력, 데이터링크를 통한 중간 유도 등 다양한 기술에 힘입어 강력한 수상함대가 없이도 지상에서 또는 공중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통해 적의 해양사용을 효과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상에 기반을 둔 전투력이 해양으로 투사하는 화력의 정밀도와 사거리가 과거와는 다르게 확장하였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지대함 미사일(CDCM)은 사거리가 통상 150km를 초과한다. 지상에서 발진하는 항공기에 탑재하면 항공기의 작전반경만큼 그 범위는 더 늘어난다. 잘 알려진 중국의 동평(DF-21D) 대함탄도미사일(ASBM)은 사거리가 1,500km에 이르고, DF-26 미사일은 4,000km에 이른다.³³⁾ 발전된 감시정찰 장비와 지휘통제 장비와의 연계를 통해 해양에서 획득한 정보를 정밀 미사일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위성기술의 발전과 해양영역 전반에 걸친 표적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를 공유하는 해양영역인식(MDA)³⁴⁾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해양거부는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예멘 후티 반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인항공기나 무인수상정을 이용하여 함정을 공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³⁵⁾

해양사용과 해양거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령 똑같이 기뢰를 부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 항만 근처에 부설하는 것을 해양거부이고, 적의 공격이나 접근을 막기위해 아군의 항만이나 주요 해역에 부설하는 것은 해양사용을 위함이다. 해양통제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론적으로 해양사용과 거부가 모두 확보되어야 해양통제가 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거부는 해양통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해양거부를 통해 해양통제 경쟁에 기여할 수 있다.

32) Kelsey Davenport and Sang-Min Kim, "Missile Proliferation Poses Global Risk," *Arms Control Association* (June 2021.)

33) Ronald O'Rourke(2024), *op. cit.*, pp.18-19.

34) 국가의 안보, 안전, 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영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를 뜻한다. US JFC, *op. cit.*, pp.IV-12 - IV-13.

35) Jon Hemler and Derek Bisaccio, "Ukraine's USVs Write New Rules for Asymmetric Naval Warfare," *Defense and Security Monitor* (2024. 6.13.); Benoit Faucon, "Houthis Use Sea Drones to Attack Vessels as U.S. Aims to Secure Red Sea," *The Wall Street Journal* (2024. 6.16.)

Ⅲ. 미국의 해양전략 변화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미국의 해양력을 따라올 국가는 없었다. 소련은 잠수함과 대함미사일과 같은 비대칭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미국의 해군력에 대응하였다. 냉전시대 미 해군의 역할은 소련의 핵공격을 억제하고 소련을 봉쇄하며, 미국 군사력의 전 세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해양에서의 국가이익을 포함한 국가안보를 지원하는 해양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미국은 1986년 「The Maritime Strategy」를 발표했다.³⁶⁾ 주요 내용은 평시에는 해군·해병대의 전방전개와 연합훈련을 통해 소련의 행동을 억제하고, 위기시에는 해군력 특유의 신속한 이동을 통해 위기를 관리한다. 전투시에는 소련의 해군력을 격멸하여 해양통제를 확보하고 유지하여 해상수송을 통해 지상작전을 지원하고 전 세계적인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³⁷⁾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 해군의 전략은 변화를 맞이했다. 소련의 몰락 이후 미국 해군의 아성에 도전하는 경쟁상대는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미 해군은 더 이상 해양에서 해양통제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었다. 대신 미 해군은 해양통제를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은 1992년 「From the Sea」라는 전략을 발표하고 이 전략은 1994년 「Forward...from the Sea」로 발전하였다. 이는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상에서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에서 벗어나 바다로부터 힘과 영향력을 연안으로 투사하는 것이었다.³⁸⁾ 전략목표는 미국의 해상에서의 우위 유지,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강화, 국제질서 유지였다. 핵심내용은 대양에서 함대 결전(Decisive Battle)보다 해군·해병대가 지상작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 결과 미 해군은 해상에서 육상으로 전투력을 투사(Power Projection)하고 지상군과 공군 작전에 기여하는 합동작전을 강조하게 된다.

2001년에는 전 지구적 대테러작전 시행을 위한 「Sea Power 21」 전략이 등장했다. 9·11 테러로 촉발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전과 다르게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미국은 원정작전에 필요한 공항과 같은 전진기지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고, 해군의 큰 임무는 지상작전에 병력, 화력, 방호와 같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해군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해군을 새롭게 편성·통합·변혁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Sea Power 21 전략의 목적은 전 세계 해양에서의 우위를 유지한 가운데 전통적

36) 임경한 외,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경쟁과 협력의 딜레마』, 서울: 북코리아, 2015, pp.37-38.

37) James D. Watkins, "The Maritime Strategy," *Proceedings*, Vol.112(1), (January, 1986)

38) John H. Dalton et al., "Forward...from the Sea," *Proceedings*, Vol.120(12), (December, 1994)

위협인 지역 분쟁과 비전통적 위협인 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해 합동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이었다.³⁹⁾

2007년에는 21세기 해양력 구현을 위한 협력적 해양전략인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 Power」을 발표한다.⁴⁰⁾ 이는 자살테러, 해적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해 전 세계 해군, 해병대, 해경(해안경비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해군으로서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⁴¹⁾ 전쟁 이외의 해군이 수행하는 역할의 외연을 한층 더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개방되고 다극화된 세계의 공동위협과 상호이익을 위한 집단 안보 노력으로 국가간의 신뢰구축, 파트너 국가들과의 해양력 통합을 강조했다.⁴²⁾ 동맹과 우방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해양전략은 경쟁세력의 부재로 해양통제 확보보다 행사에, 전통적 위협보다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중점이었다.

하지만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며 신형대국 관계를 천명하는 등 중국의 대외정책이 공세적으로 변하며 상황은 크게 변하게 된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첨단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해군력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이미 세계 최대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보다 230배 앞선 조선생산력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구형 함정을 최신함정으로 교체하고 있다. 또한, 미 해군 정보국은 중국 함선의 능력이 미국 해군 함선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평가했다.⁴³⁾

미국 해군은 2015년부터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시행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에 새로운 해양전략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 Power: Forward, Engaged, Ready」을 발표했다. 미국은 인태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에서 팽창하는 중국의 해군력을 경계하고 중국의 A2(반접근)/AD(지역거부)에 대해 심각한 군사적 도전이라 평가하였다. 전방 배치 함정을 97척에서 120척으로 증강 필요성과 해안으로의 전력투사를 위한 해양통제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⁴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는 더욱 명확해졌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NSS)에 중국을 수정주의(Revisionist Power) 국가로 명시

39) 임경한 외, 앞의 책, pp.44-45.

40) U.S. Navy, U.S. Marine Corps, U.S. Coast Guard,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 Power,"(2007.10.)

41) 윤석준, 『해양전략과 국가발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0, pp.368-377.

42) 해군미래혁신연구단, 『해양안보·전략용어 해설집』, 계룡: 해군미래혁신연구단, 2023, p.75.

43) Alexander Palmer et al., "Unpacking China's Naval Buildup," *CSIS* (2024.6.5.)

44) U.S. Navy, U.S. Marine Corps, U.S. Coast Guard,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 Power: Forward, Engaged, Ready,"(2015.3.)

하고 중국의 위협을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⁴⁵⁾ 중국의 해군력 발전과 A2/AD 전략으로 냉전 종식 이후 20여 년 동안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미국의 전 세계적 해양통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후 발표되는 미 해군의 전투개념은 해양통제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2017년 미 해군 수상전략 사령부(U.S. Naval Surface Force) ‘해양통제로의 복귀(Return to Sea Control)’라는 부제를 붙인 미 수상전력사령부의 전략(Surface Force Strategy)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서 탈냉전 이후 지난 25년간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미 해군의 우세가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해양통제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내세웠다. 주요개념은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으로 전방에 배치한 모든 전투함의 공세적 치명성의 증대, 공세적 능력을 갖춘 전력의 분산,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지원의 제공을 골자로 한다.⁴⁶⁾ 이를 통한 최종상태는 해양통제와 전력투사 능력의 부활이다.⁴⁷⁾ 이 개념은 추후 미 해군의 전투개념인 분산 해양작전(DMO)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2020년에는 미 해군은 「Advantage at Sea: Prevailing with integrated All-Domain Naval Power」 해양전략을 발표했다. 새로운 해양전략에는 변화된 전략환경과 이로 인한 미국의 위기의식이 드러나있다. 특히 중국을 가장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절박한(Pressing) 위협이라고 언급하며 장거리 정밀 미사일의 확산으로 미국이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해양을 통해 접근할 수 없다고 하였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국의 호전적인 행동을 우려하며 중국 군사력의 양적·질적 성장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새로운 해양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군의 전 역량을 통합하여 전 영역 통합 해군력을 창출하여 경쟁의 연속성(The Competition Continuum)⁴⁸⁾ 전방에 걸친 영향력을 확대한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양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한다. 일상적 경쟁

45)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17), pp.25-26.

46) 세부내용은 정호섭, “강대국 간의 경쟁시대와 미 해군의 증강 노력,” 『Strategy 21』, 통권 44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8 참조.

47) Naval Surface Force Commander, “Surface Force Strategy: Return to Sea Control,”(2016.1.1.)

48) 미 합참은 세계를 전시 또는 평시로 구분하기보다는 ① 협력(Cooperation), ② 무력분쟁 수준 이하 경쟁(Competition Below Armed Conflict), ③ 무력분쟁(Armed Conflict)이 혼합된 지속적인 경쟁의 세계로 구분하였다. ‘경쟁의 연속성’ 개념에서는 동일한 전략적 상대와 서로 다른 지점에서 동시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항행의 자유’와 같은 무력분쟁 수준 이하 경쟁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대해적 작전과 같은 영역에서는 협력하기도 한다. ‘경쟁의 연속성’은 이러한 복잡한 경쟁적 환경에 대해 같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US JFC, *JDN 1-19, Competition Continuum*, Virginia, JFC, 2019, pp.2-3.

에서의 우위를 확보한다. 경쟁적인(Contested) 전략환경에서 해양통제를 확보하고, 유지하며 활용한다. 경량 상륙함, 유무인 플랫폼 등 미래 전력을 현대화한다 등이다.⁴⁹⁾ 특히, 해군, 해병대, 해경의 통합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이전의 해양전략과 같지만,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인 해양군을 기존의 The Sea Service에서 The Naval Service로 변경하여 전투력을 창출하는 물리적 실체로 재정의하였다. 해군·해병대의 전투개념인 경쟁적 환경 하 연안작전(LOCE: Littoral Operations in a Contested Environment)⁵⁰⁾, 분산해양작전(DMO: 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⁵¹⁾, 원정전방기지작전(EABO: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을 상위 전략문서에 기술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전투개념을 현실화하기 위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상·하위 문서간의 연계성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군·해병대·해경의 기존 고유역할뿐만 아니라, 해양통제능력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⁵²⁾

〈표 2〉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양통제 중점

미국의 해양전략	년도	해양통제 중점
Maritime Strategy	1986	확보
Forward... From the Sea	1994	행사
Sea Power 21	2002	행사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 Power	2007	행사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 Power: Forward, Engaged, Ready	2015	확보·행사
Advantage at Sea: Prevailing with integrated All-Domain Naval Power	2020	확보

출처: 저자 직접 작성

49) U.S. Navy, U.S Marine Corps, U.S. Coast Guard, "Advantage at Sea: Prevailing with integrated All-Domain Naval Power," (2020.12.)

50) 경쟁적인 연안 환경에서 해군과 해병대가 긴밀히 협조하여 해양통제를 확보하고 연안지역을 장악하며 적의 C4ISR 시스템을 교란하는 미 해군-해병대의 공동 전투개념, 주요 목적은 전장인식, 전방에 해양거부 능력 구축, 해양통제 확보, 해양거부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및 비살상능력 활용, 해양력 투사작전 등이다. U.S. Navy, U.S Marine Corps, "Littoral Operations in a Contested Environment," (2017),

51) 작전지역 내 해군 함정과 항공기를 분산시켜 적이 탐지하고 공격하기 어렵게 만들며, 어느 전력이 파괴 되더라도 손실되는 비율을 줄임. 해군 부대가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하여 유무인 함선과 항공기가 서로를 지원하고 적의 목표물에 화력을 집중하는 미 해군의 전투개념, Ronald O'Rourke(2024), op.cit., p.1.

52) 정능·정재영, "미국의 새로운 해양전략서 발간과 함의," Periscope 228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1.3. 11.)

미국의 해양전략 변화와 해양통제 중점은 <표 2>와 같다. 해양통제를 중심으로 본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는 탈냉전기 이후 확보에서 행사 위주였다. 미국의 해군력과 견줄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해양전략이 전환하게 된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급속도로 해군력을 발전시켰으며, 전 세계에 전력을 분산해야 하는 미국과 달리 남·동중국해와 서태평양지역에 전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결국, 미 해군이 해양통제를 독점하는 시기가 저물게 됨에 따라 미국의 해양전략의 중점으로 해양통제 행사에서 확보로 회귀한 것이다. 미국이 독점적으로 누리던 해양패권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그 지위가 위태롭게 되었고 경쟁적 해양안보 질서로 회귀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전략의 중심도 해양통제의 행사보다 다시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IV. 미 해병대의 원정전방기지작전(EABO)

1. 원정전방기지작전(EABO) 개념

지난 세기 동안 미군의 전력 건설과 군사능력 개발은 미군이 해양우세, 공중우세, 통신망의 확보를 쉽게 달성하리라는 가정하에 계획되었다. 하지만 기술의 급속한 발전, 잠재적 적국의 무기체계의 치명성, 사거리, 정확성 증가는 미국의 전통적인 군사 우위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과 같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은 장거리 미사일 투사 능력을 활용하여 미군이 점점 더 작전지역과 동맹국으로부터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 해병대는 이런 적의 능력을 똑같이 장거리 공격 능력 경쟁을 통해 이길 수 없다고 인식하고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다른 전략을 구상하였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EABO다.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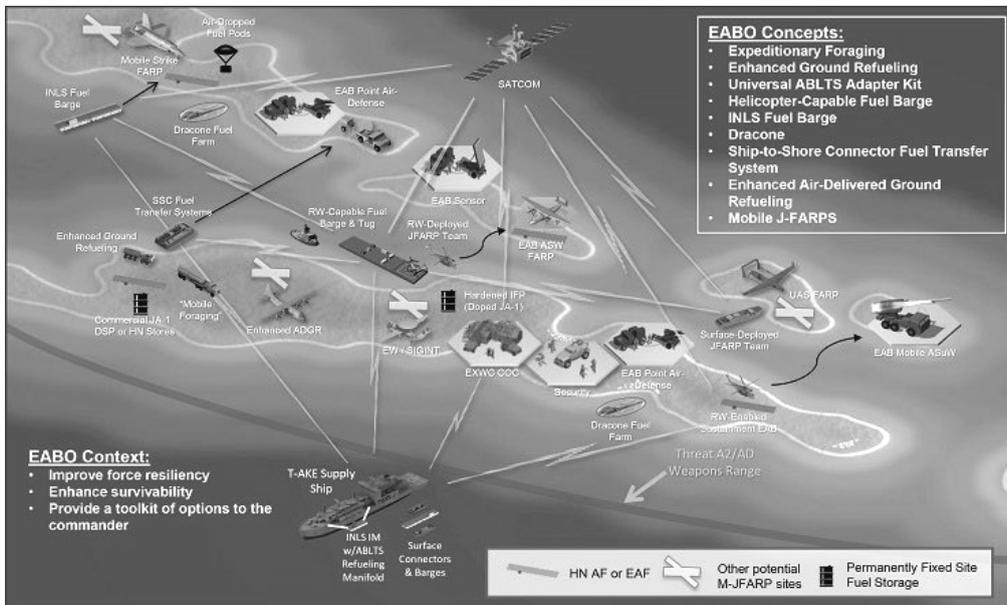
EABO는 아직 완성된 개념이 아니라 발전해 나가는 중이다. EABO는 2018년 6월 1일에 공개된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EABO) Handbook』에 최초로 소개되었다.⁵⁴⁾ 이 문서는 EABO의 개념을 소개하고 추후 의견수렴을 통한 개념발전을 위해 작성된 문서다. 이어 2021년 2월에는 EABO 임시 매뉴얼을 발표했다.⁵⁵⁾ 이 문서의

53) 미 해병대의 EABO 개념의 근원은 100년 전 피트 엘리스(Pete Ellis)라는 영관장교의 구상에서 출발한다. 엘리스는 해병대의 임무를 해군의 전략목표와 연계시켜 함대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지를 확보하고, ‘해병대가 해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강조하였다. 이는 현재 미 해병대가 ‘장기적인 지상작전’에서 ‘해상기반 임무’로 전환하고, 전방전개부대로의 전력구조를 바꾸고 함대해병대로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다. B.A. 프리드먼 지음, 김현승·이상석 옮김, 『엘리스와 미 해병대의 전쟁방식』, 서울: 연경문화사, 2021, pp.73-76.

54) US Marine Corps,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EABO) Handbook,” (2018.6.1.)

목적은 기존 HandBook을 대체하고 뒤에 설명할 Force Design 2030에 초점을 맞춘 기준 정보를 제공하고, 전투실험을 통해 전력구조와 역량을 개선하며, EABO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소개, 향후 공식 교리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 제공이었다. 2023년 5월에는 그동안의 전투실험, 위게임, 훈련의 결과와 새로운 전방배치부대(Stand-in Force, 이하 SIF)⁵⁶⁾ 개념을 반영한 EABO 임시 매뉴얼 2판이 발표되었다.⁵⁷⁾

현재 개정된 문서에 명시된 EABO의 최신 정의는 “경합적인 또는 잠재적인 경합적인 해양 지역 내 육상 또는 연안의 열악하고 임시적인 위치에서 기동성 있고, 탐지하기 어렵고, 지속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유지 및 지원이 쉬운 해군 원정군을 운용하는 원정작전 형태로, 해양거부, 해양통제 지원 또는 함대 지속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⁵⁸⁾



출처: Semming Rusten *et al.*, “Stand-in forces and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EM*(2022.6.1.)

〈그림 2〉 원정전방기지작전 수행 개념도

55) US Marine Corps, “Tentative Manual for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 (2021.2.5.)
 56) ‘Stand-in Force’를 우리 한국어로 명확히 번역한 명칭은 현재 없다. 본 연구에서는 ‘Stand in Force’를 ‘전방배치부대’라고 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Stand-in’ 개념이 적의 사정거리 내 침투하여 타격하는 의미, ‘Force’가 군(부대) 또는 전력이란 의미를 고려한다면 분쟁지역 내 전방에서 적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배치된 부대라는 의미가 적합해 보인다.
 57) US Marine Corps, “Tentative Manual for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 2nd Edition,” (2023.5.9.)
 58) Us Marine Corps(2023), p.E-2

EABO의 대표적인 임무는 ① 미 해군의 해양통제작전 지원, ② 해안에서 해양거부작전 수행, ③ 해양영역인식(MDA)에 기여, ④ 전방에서 C5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combat systems,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targeting) 및 대(對) C5ISR 역량 제공이다.⁵⁹⁾

이는 기존 경쟁적 환경 하 연안작전(LOCE) 개념을 계승·발전시키고, 미 해병대의 미래 군 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가치 전력인 항모강습단과 원정강습단 및 고정기지인 괌, 오키나와 등의 피격 위협을 감소시키고, 해병전력(장거리 유도무기, 유·무인 전력 등)을 탄력적으로 잠재적 적국 인근에 전개하여 압박과 공세를 취하는 것이 중심 개념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현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전력 개선 분야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해상타격능력, 방호, 정찰, 미사일 중심의 화력 전력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정전방기지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분산된 지원기능들의 집합체이며 전체적으로 내부전력의 전투 및 지원기능을 주둔, 지속, 유지하기 위한 필수 지원기능을 제공한다. EABO는 원정전방기지에 주둔한 전력들이 수행하는 전술적 작전 및 작전지원활동이다. EABO의 기본가정은 적의 중·장거리 정밀타격의 사거리 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력은 적의 장거리 정밀타격 사거리 범위 내에서 더 분산되어 기동성, 치명성 탄력성이 뛰어나 표적화하기 어려워야 한다. 적보다 더 작은 규모, 저렴한 비용, 표적화 어려움, 위협 감수에 최적화된 전력들의 운용으로 오히려 적에게 상대적인 비용과 위협의 부담을 강요한다. 또한, 적이 자산 보호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 비용 및 능력, 원정전방기지작전 능력 식별, 고착, 표적화 또는 파괴에 요구되는 적의 노력을 극대화시킬 것이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전력들은 지상기반 장거리 정밀화력, ISR 자산, 레이더, 무인체계, 지휘통제체계 등의 지상기반의 센서와 무장들이다.

2021년 11월 제시되어 EABO에 반영된 SIF 개념은 EABO에 대한 추가 배경 및 작전적 예를 제공한다. 미 해병은 SIF를 “소규모지만 치명적이며, 탐지가 어렵고, 기동성이 높으며, 유지보수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병력으로, 경쟁의 연속체 전체에 걸쳐 경쟁 지역 내에서 해상 중심방어의 최전선으로 운용되어 잠재적 또는 실제 적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도록 설계되었다. 상황에 따라 SIF는 해병대, 해군, 해안경비대, 특수작전부대, 관계기관 및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요소들로 구성된다.”⁶⁰⁾라고 설명한다.

‘Stand - off’ 접근법은 원거리 정밀타격 무기를 활용하여 원거리에서부터 적을 상대하

59) Ibid., pp.1-2 - 1-3.

60) US Marine Corps, “A Concept for Stand-in Force,” (2021.12.), p.4.

며 부대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수 세기 동안 군사혁신을 통해 소총, 폭격기, 미사일 등 신무기체계의 사거리와 명중률 향상이 이런 접근법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Stand-in’ 접근법은 원거리 정밀타격 무기를 갖추고, 적의 사정거리 내에 침투하여 적을 타격하는 방법이다. 어느 것이 우위를 점하는 접근법은 아니지만, 전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두 가지 기능은 상호보완적 성격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여전히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누리고 있지만, 잠재적 적들의 무기체계 발전은 장기간 유지했던 비교우위를 많이 상쇄하고 있으며 기존의 접근방식으로는 비교우위를 점할 수 없기에 새로 등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SIF는 해병대와 육군 부대가 대체로 상호교환 가능한 작전임무를 수행했던 지난 수십년간의 자원 집약적, 육상 중심적 초점에서 해군 및 원정작전으로의 개념 전환으로 볼 수 있다. SIF는 EABO 개념의 일부로 소규모, 치명성, 탐지의 어려움, 기동성을 보유한 군 구조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 또는 현존 적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해상방어의 최선봉에 위치하여 분쟁 지역 내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되며 상황에 따라 해병대, 해군, 해경, 특수작전부대, 관계기관, 동맹국 및 우방국들로 구성된다.

SIF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용된다. 첫째, 전진배치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과 우방국의 안보를 보장한다. 전 영역 정찰을 통해 악의적인 행동을 식별하고 잠재적인 적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연계를 통해 통합 대응한다. 둘째, 잠재적인 적들을 억제한다. 억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적의 생각,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셋째, 잠재적 적의 능력과 자산들 같은 잠재적 목표를 확보하여 관리하며, 그들의 작전방식과 정기적인 활동에 대한 기준을 확립한다. 넷째, 역정찰을 통해 적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상쇄하고 거부한다. 다섯째, 킬체인 대신 킬웹(Kill Web)을 완성한다. 킬체인은 군사 표적을 탐지부터 파괴하는 데까지의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처리 과정상의 관련된 네트워크 구조나 연결을 의미하고, 킬웹은 여러개의 킬체인의 구성요소들을 병렬로 연결한 것이다. 저가의 단일기능과 다수전력으로 구성된 요소들로 의사결정 중심의 킬웹을 구성하여 생존성과 작전효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여섯째, 해상의 애로지역 주변에서 적 이동의 자유를 거부한다. SIF 자체 센서와 무기를 해군, 합동 및 연합전력의 센서 및 무기와 통합함으로써 중요한 지역에서 해상거부를 위한 전투관리자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적의 작전계획 실행을 방해한다. SIF는 적들이 해군과 합동군을 방해하기 위해 그들의 군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들의 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좌절시킨다. 무력충돌 시 SIF는 해상방어의 중심을 확장하여 해군의 기동과 합동군의 진입을 지원하면서 적의 기동을 방해한다.⁶¹⁾

EABO의 핵심은 해양거부를 통해 해양통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해양통제는 공격적 개념인 해양거부와 방어적 개념인 해양사용 보호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달성할 수 있다. 해병대가 도서 또는 육상에서 지대함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화력을 운용하거나 ISR&T(정보감시정찰 및 표적화)를 제공하고, 적의 ISR&T 역량을 저하시키면 적의 해양통제 영향력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적의 영향력 감소는 아군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미 해병대는 포병전력을 축소하여 엄출된 자산과 인력을 활용하여 NMESIS 시스템⁶²⁾과 지상발사용 토마호크 미사일⁶³⁾ 등 장거리 화력체계를 태평양 도서 및 필리핀과 같은 우방국에 배치하고 있다. 미 해병대는 장거리 대함(대지) 공격 능력을 활용하여 적성국의 해양사용을 거부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해양통제 확보와 행사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해병대는 해양통제 행사 방법의 하나인 해양력 투사의 주요 병력이었다. 해군이 해양통제를 확보하면 해병대가 중심이 된 상륙작전을 통해 해양통제를 행사하여 전쟁에 기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ABO 개념은 반대로 해병대가 해군을 도와 해양통제 확보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는 미·중 해양통제 경쟁시대에 미 해군 단독으로 해양통제 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공통의 위기의식에서 도출된 전투개념이다.

2. Force Design 2030

미 해병대는 2020년 3월 23일, EABO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향후 10년에 걸친 전력 구조 변경계획인 「Force Design 2030」을 발표했다.⁶⁴⁾ 이는 EABO 전투개념을 구현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병력 12,000명 감축, 전차부대 해체, 포병부대 감축, 유인항공기 규모를 감축하는 대신 장거리 미사일, 무인항공기, 이동식 방공시스템을 증편하고 감시정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지상전투의 핵심인 전차부대와 포병부대를 전부 해체하거나 감축하는 등 해병대가 앞으로 육군처럼 대규모 지상전투를 하지 않고 함대해병대(Fleet Marine Force)⁶⁵⁾로 회귀할 것임을 나타냈다. 주요 전력변화는 <표 3>과 같다.

61) US Marine Force(2021), *ibid.*, pp.10-22.

62) Parth Satam, "NMESIS' To Chinese Warships, US Marine Corps Fire Naval Strike Missile Designed To Deflate PLA Navy," *The Eurasian Times* (2023. 7.23.)

63) Aaron-Matthew Lariosa, "Marine Activate First Tomahawk Battery," *USNI News* (2023.7.25.)

64) US Marine Corps, "Force Design 2030," (March 2020)

65) 합동 무기체계와 지원 항공부대를 보유하고, 미국 함대와 함께 전방 해군기지를 점령 또는 방어하며, 해군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육상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태평양과 대서양에 사령부가 있으며, 지정된 해병 부대는 해군함대사령관에게 배속되어 작전통제를 받는다. US Marine Corps, *Marine Corps Common Skills Handbook* (MCPDS: Geogia, 2001.) p.1-2-1.

〈표 3〉 FD 2030 주요 전력변화

구 분		기존	변경	증감	비 고
지휘 제대	군사경찰대대	3	-	-3	해체
	법무대대	1	-	-1	예비역으로 유지
지상 전투 제대	보병연대	8	7	-1	1개 연대본부 감축
	보병대대	24	21	-3	3개 대대 감축
	예비군 보병대대	8	6	-2	보병대대 감축과 연계
	포병대대	21	5	-16	보병대대 감축과 연계
	로켓대대(HIMARS)	7	21	+14	장거리 정밀화력 증강
	경장갑수색대	9	12	+3	정찰능력 증강
	상륙장갑차대대	6	4	-2	보병대대 감축과 연계
	전차대대	7	-	-7	해체
항공 전투 제대	전투기대대	18	18	-	대대당 항공기 수 감축
	수직이착륙기대대	17	16	-1	보병대대 감축과 연계
	중헬기대대	8	5	-3	보병대대 감축과 연계
	경공격헬기대대	7	5	-2	보병대대 감축과 연계
	공중급유수송기대대	3	4	+1	작전지속지원 능력 강화
	무인기대대	3	6	+3	인명피해 최소화, 정보수집 강화

출처: US Marine Corps, Force Design 2030(March 2020), Force Design 2030 Annual Update 2021(April 2021), Force Design 2030 Annual Update 2022(May 2022), Force Design 2030 Annual Update 2023 (June, 2023). 발췌, 재작성.

오키나와에 본부를 둔 제3해병원정군(III-MEF: Marine Expeditionary Force)은 예하에 3개 연대를 해병연안연대(MLR: Marine Littoral Regiment)로 전환할 예정이다. 해병연안연대의 주요 임무는 EABO 수행, 대해상(지상) 타격작전 수행, 방공작전 조정, 해양영역인식(MDA) 지원, 해군 수상전투 지원, 정보작전 지원 등이다.⁶⁶⁾ 해병연안연대는 약 2,000명 내외의 병력으로 연안전투팀(LCT, Littoral Combat Team), 연안방공대대(LAAB, Littoral Anti-air Battalion), 전투군수대대(CLB, Combat Logistic Battalion)로 구성된다. 연안 전투팀은 보병대대와 함께 장거리 대함 미사일 발사대를 운용한다. 연안방공대대는 방공, 공중 감시 및 조기경보, 공역 통제, 전방에서의 항공기 재장전 및 재급유 기능을 제공한다. 연안 물류 대대는 전술적 물류 지원을 제공하여 독립된 전장에서 지속지

66) Andrew Feickert, "The U.S. Marine Corps Marine Littoral Regiment(MLR)," *CRS Report* (2022, 8.25.) p.1.

원을 가능하게 한다.⁶⁷⁾

EABO와 마찬가지로 Force Design 계획은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개되었다. 2021년 4월에 공개된 문서에는 보유한 450대의 전차 대부분을 육군으로 이전, 효율적인 EABO 작전을 위한 보병대대 재편성, 공중 통신, 정찰, 전자전이 가능한 무인항공기 도입, 포병 전력 감축, 유인 항공기 전력도입 계획 축소, 해상작전 지원을 위한 지속지원 능력의 현대화 등이 포함되었다.⁶⁸⁾

2023년 6월 5일, 미 해병대는 세 번째 문서를 공개하며, 현장 부대들이 Force Design에서 계획된 많은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⁶⁹⁾ 이 문서에는 추가로 발전하고 보완해야 할 능력들을 언급했다. 인력관리 측면에서 해병대원들이 미래 전장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인재관리 시스템의 개편을 강조했다. 경쟁 환경에서 전방에 주둔하고 있는 SIF의 지속지원 보장을 위해 조달을 다변화하고, 현지에서의 물품 조달을 확대하며, 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언급했다. 경쟁적인 연안 지역에서 기동성 확보를 위해 중형 상륙함(LSM) 조달⁷⁰⁾을 요구했는데, 1개 해병 연안연대당 9척의 중형 상륙함이 필요하며, 3개 연안연대를 위해서는 총 35척의 중형 상륙함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무인항공 시스템의 통합과 새로운 무인항공기의 개발, 항공 정비 및 지속지원능력의 개선 등 무인항공기 체계 전반을 더욱 효율적이고 치명적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전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와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Force Design에는 찬반논란이 뜨겁다. 은퇴한 고위 해병대 장성들과 전직 행정부 관리들은 미 해병대를 변화시키려는 계획을 비판하며, 이것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의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전차, 포병, 유인 항공능력의 축소로 합동작전 기여도가 낮아지고, 중국 위협 외 다른 지역에서의 해병대 전투능력이 감소할 것이다. 새로운 EABO 전투개념은 검증되지 않았다. 도시에서 싸우는 시가전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등이다. 반면 해병대의 전력구조 변화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내며 맞서고 있다. 현재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해병연안연대는 적에게 작전적·기술적 딜레마를 강요할 것이다. Force Design이 더 비용 효율적이다. 해병

67) Andrew Feickert, "U.S. Marine Corps Force Design 2030 Initiative: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2023.6.30.), pp.2-3.

68) US Marine Corps, "Force Design 2030: Annual Update," (April 2021)

69) US Marine Corps, "Force Design 2030: Annual Update," (June 2023)

70) LSM 사업에 대해서는 Ronald O'Rourke, "Navy Medium Landing Ship (LSM) (Previously Light Amphibious Warship [LAW]) Program: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2023. 5.24.) 참조.

대의 유인 항공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해병대의 억제능력이 더 향상될 것이다. 등을 주장했다.⁷¹⁾ 전력구조의 대대적 개편은 많은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 해병대는 미·중 해양패권 경쟁에 대처하고 미 해군의 해양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개념과 미래 조직구조를 환골탈태(換骨奪胎) 수준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V. 결론

미국의 해양전략은 군사전략 수준을 넘어 강대국 패권경쟁을 지원하는 세계전략 차원의 전략이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해양통제 경쟁 대상자가 없어진 미국은 해양통제 확보보다는 행사를 중점으로 전략을 수행했다. 하지만 중국의 급격한 부상 이후 미·중 해양통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의 해양전략은 해양통제 행사에서 확보를 중점으로 전환하였다. 미 해병대 역시 기존의 지상전에 치중했던 전투개념과 조직구조에서 벗어나 해양통제 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전투개념인 EABO를 구상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EABO의 근본적인 변화 목적은 해양거부를 통해 해양통제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미 해병대는 이를 위해 「Force Design 2030」이라는 대규모 전력구조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상전의 핵심인 전차부대를 과감히 해체하고 포병부대를 대규모로 감축하며, 유인항공기 도입을 축소하였다. 반면 장거리 해상(지상) 타격 미사일과 무인항공기를 대량 도입하고, 도서에 신속하게 상륙할 수 있는 중형 상륙함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해양전략과 해병대의 전투개념 변화는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우리 해군·해병대도 공통의 인식과 방향성을 가진 전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투개념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한국의 해군력은 북한에 대해서는 강제지만 주변국에 대해서는 현저히 열세하다. 인도태평양에서의 미·중 신냉전 구도와 해양에서의 회색지대 분쟁의 증가는 국가 대외정책의 주요 수단인 해군력의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래 불확실하고 다극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해군과 해병대의 자원과 노력을 통합하고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미 해군·해병대는 공통의 전략 인식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휘부가 교체되어도 기

71) Andrew Feickert, op.cit., pp.7-8.

준의 해양전략과 전투개념을 일관적으로 추진한다.⁷²⁾⁷³⁾

둘째, 해병대는 상륙작전 이외의 다양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 미 해병대의 EABO 개념처럼 연안이나 도서에서 투사하는 해양거부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동/서해에 장거리 지대함 전력을 배치하게 되면, 유사시 대북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잠재적 해양통제 경쟁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해병대는 해군과 함께 언제, 어디로든, 어떤 임무라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전투병력이다. 해군 함정에 탑승하여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고 임무에 따른 장비탑재와 부대 편조를 통해 고강도 분쟁, 회색지대 분쟁, 인도적 지원/재난구호(HA/DR)까지 경쟁의 연속체 전반에 걸친 대응이 가능하다. 해병대가 운영 중인 신속기동부대 운용개념을 보완하여 도서전개, 국가중요시설 방호, 탐색구조, 무력시위 등 국가정책 수행의 최우선 군사옵션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셋째, 미·중 해양통제 경쟁에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은 해군력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에서의 해양통제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미 해군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인도태평양에서의 해군력 균형은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전 세계에 해군력을 분산해야 하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동남중국해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고, 지상에서 발진하는 항공기와 다수·다량의 미사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을 압도하는 조선 건조력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대규모 건함사업을 통해 전투함을 소위 ‘찍어내는’ 수준으로 건조하는 반면, 미국의 조선역량은 붕괴 직전이다.⁷⁴⁾ 미 해군·해병대의 전략과 전투개념이 변화하게 된 이유는 미국이 이제 더 확고한 해양통제 확보능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의회는 미국이 대규모 전쟁을 치를 확률이 지난 80년 만에 가장 높지만, 미국 군대는 이에 대비하지 못하고 지적했다.⁷⁵⁾ 이제 미국의 해군력에 기대어 규칙기반의 해양질서가 유지되기는 어렵다. 이에 미국은 기존의 동맹체계를 기반으로 QUAD, AUKUS,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소다자주의(Mini-lateral) 협의체를 운용하며 격자형(Lattice-like) 안보체계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 단독으로 미·중 패권경쟁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맹국과 유사입장국(Like Minded States)와의 협력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⁷⁶⁾

72) US Navy, “Chief of Naval Operations Navigation Plan : For America’s Warfighting Navy,” (2024).

73) US Marine Corps, “FRAGO 01-2024, Maintain Momentum,” (April 2024).

74) “U.S. Navy struggles with warship production while facing expanding global threats” CBS NEWS(온라인), <https://www.cbsnews.com/news/us-navy-struggles-with-warship-production-while-facing-expanding-global-threats/>(검색일: 2024.10.10).

75) Noah Robertson, “‘Not prepared’: Congressional panel calls for huge defense buildup,” *Defense News* (2024.7.29.)

76) Jim Garamone, “U.S. Official Says Allies Acting Together to Deter China,” *US DOD* (2023.9.23.)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이 제공하는 규칙기반의 해양질서 속에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외교정책 비전은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 가치와 규범의 연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다자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외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지구 반대편에 벌어지는 사건과 이슈가 우리나라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리나라는 국제이슈에 민감한 국가다. 특히, 동남중국해 문제, 중국과 대만과의 양안 갈등은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블룸버그는 양안전쟁시 우리나라가 GDP의 23.3%가 감소하여 대만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큰 피해를 볼 것이라 경고했다.⁷⁷⁾

해군·해병대는 가장 수준높은 연합작전 역량과 조직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당장 중국의 서해 내해화 시도를 막아내야 하므로 미국과의 공조는 절실하다. 한반도를 벗어나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선 해군·해병대의 전력 발전이 필요하다. 우리가 누려왔던 규칙기반의 해양질서가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미래예측도 불투명하다. 군사력이란 국가방위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정책의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 무력충돌뿐만 아니라 군사외교, 억제, 강압, 위기관리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국제문제는 우리의 일상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는 그 무대에 서 있다. 그 무대에서 주도권을 잃고 끌려가지 않으려면 한반도 천동설을 벗어나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가장 유용한 군사력은 우리 해군과 해병대다.

참고문헌

- 김주환, “중국의 제해권 확충 노력: 조어도 분쟁을 중심으로,” 『영도해양연구』 제9권, 동북아역사재단, 2015.
- 김현기, 『현대 해양전략 사상가』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 두산백과, “제해권(control of the sea)”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1462&cid=40942&categoryId=31734>(검색일: 2024. 10.10).
- 임경한 외,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경쟁과 협력의 딜레마』 서울: 북코리아, 2015.
- 윤민우, “소련·러시아의 동북아 해양안보와 해군전략: 전쟁과 평화의 바다로서의 한반도 주변해역,” 『평화학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3.

77) Jennifer Welch *et al.*, “Xi, Biden and the \$10 Trillion Cost of War Over Taiwan,” *Bloomberg* (2024.1.9.)

- 윤석준, 『해양전략과 국가발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0.
- _____, “21세기 미국 해양전략 발전과 의미,” 『해양전략』 139호, 해군대학, 2008.
- 정능·정재영, “미국의 새로운 해양전략서 발간과 함의,” *Periscope* 228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1. 3.11.)
- 정호섭, “강대국 간의 경쟁시대와 미 해군의 증강 노력,” 『Strategy 21』 통권 44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8.
- 조민성·정창윤, “미래 한국 해병대의 도서지역 작전수행 연구: 해양거부 관점에서,” 『해양안보』, 제8권 제1호(통권 8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4.
- 조성진·조재욱, “해양통제 확보 수단으로서 해군기지 타격에 관한 연구,” 『안보군사학연구』 제19권 제2호, 안보군사연구원, 2023.
- 최우선, 『미중 경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IFANS 국제문제분석 2020-62,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2020.10.23.)
- 합참,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서울: 합참, 2019.
- 해군, 『해군·해병대 군사용어사전』 대전: 해군본부, 2022.
- 해군미래혁신연구단, 『해양 안보·전략용어 해설집』 계룡: 해군미래혁신연구단, 2023.
- B.A. 프리드먼 지음, 김현승·이상석 옮김, 『엘리스와 미 해병대의 전쟁방식』, 서울: 연경문화사, 2021.
- Corbett, Julian S.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Maryland: USNI, 1988,
- Dalton, John H. et al., “Forward...from the Sea,” *Proceedings*, Vol.120(12), (December, 1994)
- Feickert, Andrew. “The U.S. Marine Corps Marine Littoral Regiment(MLR),” *CRS Report* (2022. 8.25.)
- _____. “U.S. Marine Corps Force Design 2030 Initiative: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2023.6.30.)
- Friedman, Norman. *Seapower as Strategy*,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2001.
- O'Rourke, Ronald. “China Naval Modernization: Implications for U.S. Navy Capabilities,” *CRS Report* (2024. 8.16.)
- _____. “Navy Medium Landing Ship (LSM) (Previously Light Amphibious Warship [LAW]) Program: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2023.5.24.)
- Watkins, James D. “The Maritime Strategy,” *Proceedings*, Vol.112(1), (January, 1986)
- Davenport Kelsey and Kim, Sang-Min. “Missile Proliferation Poses Global Risk,” *Arms Control Association* (June 2021.)
- Dunley, Richard. “Is sea denial without sea control a viable strategy for Australia?,” *The Strategist* (2019.10.10.)
- Faucon, Benoit. “Houthis Use Sea Drones to Attack Vessels as U.S. Aims to Secure Red Sea,” *The Wall Street Journal* (2024.6.16.)
- Garamone, Jim. “U.S. Official Says Allies Acting Together to Deter China,” *US DOD* (2023.9.23.)
- Lariosa, Aaron-Matthew. “Marine Activate First Tomahawk Battery,” *USNI News* (2023.7.25.)
- Hemler, Jon and Bisaccio, Derek. “Ukraine’s USVs Write New Rules for Asymmetric Naval Warfare,” *Defense and Security Monitor* (2024.6.13.)

- Naval Surface Force Commander. "Surface Force Strategy: Return to Sea Control," (2016.1.)
- Noah, Robertson, "'Not prepared': Congressional panel calls for huge defense buildup," *Defense News* (2024.7.29.)
- Palmer, Alexander et al., "Unpacking China's Naval Buildup," *CSIS* (2024.6.5.)
- Satam, Parth. "'NMESIS' To Chinese Warships, US Marine Corps Fire NavalStrike Missile Designed To Deflate PLA Navy," *The Eurasian Times*(2023.7.23.)
- Speller, Ian. *Understanding Naval Warfare*, New York: Routledge, 2019.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17.
- Till, Geoffrey. *Seapower: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Frank Cass, 2004.
- US JFC, *JDN 1-19, Competition Continuum*, Virginia, JFC, 2019.
- _____, *JP 3-32 Joint Maritime Operation*, Virginia: JFC, 2023.
- _____, *Joint Strategic Planning System*, Virginia: JFC, 2024
- US Navy, "Chief of Naval Operations Navigation Plan : For America's Warfighting Navy," (2024)
- U.S. Navy, U.S Marine Corps, "Littoral Operations in a Contested Environment," (2017),
- U.S. Navy, U.S Marine Corps, U.S. Coast Guard.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 Power," (2007.10.)
- _____.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 Power: Forward, Engaged, Ready," (2015. 3.)
- _____. "Advantage at Sea: Prevailing with integrated All-Domain Naval Power," (2020. 12.)
- US Marine Corps, "A Concept for Stand-in Force," (2021.12.)
- _____,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EABO) Handbook," (2018.6.1.)
- _____, "FRAGO 01-2024, Maintain Momentum," (April 2024)
- _____, "Force Design 2030," (March 2020)
- _____, "Force Design 2030: Annual Update," (April 2021)
- _____, "Force Design 2030: Annual Update," (June 2023)
- _____, *Marine Corps Common Skills Handbook*, MCPDS: Geogia, 2001.
- _____, "Tentative Manual for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 (2021.2.5.)
- _____, "Tentative Manual for Expeditionary Advanced Base Operations 2nd Edition," (2023.5.9.)
- Vego, Milan. *Maritime Strategy and Sea Control*, New York: Routledge, 2016.
- Williams, Brian Glyn. "How the Ukrainians - With No Navy - Defeated Russia's Black Sea Fleet," *Military.com* (2024.7.19.)
- Welch, Jennifer et al., "Xi, Biden and the \$10 Trillion Cost of War Over Taiwan," *Bloomberg* (2024.1.9.)
- "U.S. Navy struggles with warship production while facing expanding global threats" CBS NEWS (온라인), <https://www.cbsnews.com/news/us-navy-struggles-with-warship-production-while-facing-expanding-global-threats/>(검색일: 2024.10.10).

【 Abstract 】

Implications of the US–China Maritime Hegemony Competition and Changes in the US Military Strategy : Focusing on Changes in the US Navy's Maritime Strategy and the US Marine Corps' Warfighting Concept

Cho, Seong Jin · Jung Chang Yun

This study analyzes the decline of U.S. maritime hegemony in the Indo-Pacific through the lens of sea control theory, focusing on changes in the U.S. Navy's maritime strategy and the Marine Corps' warfighting concept. By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U.S. Navy's maritime strategy in terms of the purpose(exploiting) and means(securing) of sea control, this study finds that the emphasis has shifted from exploiting to securing, indicating a decline in its level. The Marine Corps' new warfighting concept, EABO, is analyzed in terms of the components of sea control: sea use and sea denial. It is found that the purpose of this change is to contribute to securing U.S. Navy's sea control. The U.S. crisis consciousness in the U.S.-China maritime hegemony competition is evident in its maritime strategy and warfighting concept.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security policy in response to the intensifying U.S.-China maritime competition and lay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formulation of future maritime strategy.

Key Words : US-China Maritime Competition, Sea Control, Warfighting Concept, EABO, Force Design 2030

• 논문투고일 : 2024년 10월 23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4년 11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11월 21일

